한국학연구 제62집 | 117~138쪽 | 2021.8.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일본문학가의 조선 체험과 문학*

–가토 다케오, 기쿠치 간, 기무라 기를 중심으로–

윤미란**

〈차 례〉

1.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문학자들
2.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일본문학가의 조선을 향한 시선
3. ‘대동아문학’ 속에서 호명되는 조선문학
4. ‘대동아정신’의 이상과 현실을 보여주는 일본 문학가들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으며 대회 전후로 조선과 관련된 글을 남긴 일본작가인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기쿠치 간(菊池寬), 기무라 기(木村毅)의 조선 체험과 조선관을 살펴보았다.

가토 타케오와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는 만주나 중국에서 촉발되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김에 따라 조선을 만주나 중국과 비교하면서 조선을 인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의 ‘대동아정신’을 적극 이행하며 조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조선 인식 속에는 ‘대동아정신’의 이상과 현실의 충돌 및 모순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기쿠치 간은 마해송을 예로 들어 ‘대동아정신’의 구현을 실천하였다며 자부하는 한편 당시 일본은 이러한 실천이 부족하였음을 패전 직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절 일제의 군인으로서 조선을 겪어본 기무라 기는 패전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일제 강점기의 조선을 떠올리며 ‘대동아정신’의 모순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대동아문학자대회, ‘대동아정신’,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기쿠치 간(菊池寛), 기무라 기(木村毅), 조선 체험, 이상과 현실의 모순

1.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문학자들

1942년 5월에 결성된 일본문학보국회는 같은 해 8월, ‘황국문화선양대동아문학자회의(皇国文化宣揚大東亜文学者会議)’를 기획하고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대동아전쟁 아래 문화의 건설이라는 공통의 임무를 진 공영권 각지의 문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그 포부를 나누고 서로 흉금을 말하자’는 목적으로 1942년 11월 3일, 도쿄의 제국극장에서 일본문학보국회 주최로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열렸다. 대만과 조선의 문인들을 합하여 일본 측에서 57명, 만주와 몽골 그리고 중국 대표 21명 총 78명의 문인들이 참석하였다. 이후 1943년 8월 제2차 대회(도쿄, 총 125명의 문인들 참석), 1944년 11월 제3회 대회(중국 난징(南京), 총 69명의 문인들 참석)가 연달아 열렸다. 제1, 2회 대회의 일본과 조선의 참석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본과 조선의 제1회와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참석자(모두 일본 소속으로 표기됨)

대회	거주지와 국적	인명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일본 거주 일본인	쓰치야 분메(土屋文明),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일본문학보국회사무국장),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일본문학보국회이사),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字), 가와지 류코(川路柳虹) 기쿠치 간(菊池寛),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 47명
	일본 거주 조선인	장혁주
	조선 거주 조선인	이광수(香山光郎), 박영희(芳村香道), 유진오
	조선 거주 일본인	데라다 에이(寺田瑛),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일본 거주 일본인	도가와 사다오(戸川貞雄),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일본문학보국회사무국장),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일본문학보국회이사),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기쿠치 간(菊池寛), 등 93명
	일본 거주 조선인	장혁주
	조선 거주 조선인	유진오, 최재서, 유치진, 김용제(金村龍濟)
	조선 거주 일본인	쓰다 쓰요시(津田剛, 녹기연맹)

제1회 대회 의제는 ① 대동아정신의 수립 ② 대동아정신의 강화, 보급 ③ 문학을 통한 민족 간의 사상문화의 융합방법 ④ 문학을 통한 대동아전쟁 완수의 방도, 네 가지였다. 회의는 완전히 일본 측의 주도로 행해졌다. 회의는 문학자 자신의 기획이라기보다는 일본정부, 육해군 주도하에 거행되었다.[1] 위정가와 군인을 위시하여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일본문학보국회 소속 문학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일본문학인이 본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의제로 상정된 '대동아정신'이란 무엇인가. '대동아(大東亞)'란 말은 글자 그대로 동아시아에 동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1940년 7월 일본이 국책요강으로 '대동아 신질서 건설'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일본이 맹주가 되어 서양 강대국의 제국주의에서 해방하고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공존공영의 권역으로 만들자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과 '대동아전쟁'으로 나아가는 근저에 '대동아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상 일제가 주장하던 '대동아정신'은 이미 제1회 대회에서부터 조선문학자와 대만문학자의 소속이 일본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존공영하면서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일제의 이율배반적인 '대동아정신'에 기초한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 제각기 다른 "상처의 유산"[2]으로 남았다. 본고에서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하여 일제가 내세운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개최 의의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생각과 발언을 하였던 일본 작가들의 여러 텍스트를 독해하고 그들의 텍스트에 나타난 '조선'과 '조선문학'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이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분석한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3]를 필두로 대동아문학자대회의 형식 및 참

1) 오무라 마스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한 문학자, 하지 않았던 문학자」,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4, 84~85면.
2) 오무라 마스오, 위의 글, 98면.
3) 오무라 마스오의 선집 시리즈인 『식민주의와 문학』(소명출판, 2014)에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김용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한 문학자, 하지 않았던 문학자」등의 연구 성과가 한국어로 출

여자들의 태도와 발언 등을 조선 측 참석자였던 이광수와 최재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신지영의 연구,[4] 대동아문학자대회를 둘러싸고 당시 '내지'의 문학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대동아문학상' 및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 곽형덕의 연구[5]가 있다. 이들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대회의 일본 측 참석 문학가들의 발언이나 글 속에 나타난 조선관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의 감상과 논리 속에 '대동아정신'이라는 이상과 그것의 실현에서 구현된 실제 결과물을 찾아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일본 문인들이 했던 발언을 참고하면서 태평양전쟁 전과 후, 조선에 관하여 드러낸 여행기, 수필을 비롯하여 소설 등의 텍스트를 독해하고 그 텍스트 안팎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우 많은 일본 문인들이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여하였지만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과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인 텍스트를 남겼던 일본 문인들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그들의 발언을 독해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시도해 볼만한 자료가 있는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기쿠치 간(菊池寛), 기무라 기(木村毅)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작가론의 차원에서 제각기 작가작품론 연구가 있으며, 참고하여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동아문학자대회와 '조선(문학)'에 한정하여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가볍게 연구되었던 지점에 관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일본 문인들의 조선관에 대해 살펴보면 양가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본국의 주체로서 조선을 타자화하여 인식하는 한편 근대자본주의에 대한 인문학자로서의 비판과 거리두기 혹은

판되었다.

4) 신지영, 「'대동아 문학자 대회'라는 문법, 그 변형과 잔여들－타자는 타자와 만날 수 있는가?－」, 『한국문학연구』, 2011;『부(不)/재(在)의 시대 : 근대계몽기 및 식민지기 조선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5) 곽형덕, 「'大東亜' 談論と日本帝国の文学場－大東亜文学賞と芥川賞を中心に－」, 『한민족문화연구』 46, 2014

반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일제의 위정가와 군부로부터 만들어진 '대동아정신'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 사상 자체의 모순과 더불어 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없었는지 일본 문인들의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그 의미에 관하여 분석하는 일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생성되어 유통되던 조선(한국)문학 나아가 조선(한국)학의 한 단면을 살피는 데 일조할 것이다.

2.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일본문학가의 조선을 향한 시선

제1회와 제2회 두 차례에 걸쳐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하여 "소국민 문화의 문제"로서 "소년문학의 진흥"[6]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가토 다케오(加藤武雄)는 1911년부터 신조사(新潮社)의 편집자로 일하였는데 이후 1919년 소설가로 데뷔하여 통속소설, 소녀소설 등을 창작하였다. 전시하에서는 전의고양소설(戰意高揚小說)을 썼다. 실제 제1, 2회 대회 모두에서 중국과 일본의 소년문학 진흥에 관하여 역설(力說)하고 있고 조선의 문학이나 소년문학 진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가토 다케오가 조선의 소년문학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회에서 '조선'은 이미 '일본'에 속하여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함께 '소국민'으로서 '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문학을 진흥'하자고 연설하였지만 이것은 당연히 조선도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토 다케오는 조선에 관한 두 편의 수필을 썼는데 이 텍스트를 살펴보자.

> 소란스러운 지나에 비하면 조선은 매우 조용한 나라일 것이다.
> 혼란하고 들끓고 새된 비명을 지르는 지나(支那). 거기에는 어떤 차분함도 없었다.
> 조선도 잠자고 있지는 않다. 깨어나서 일어서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조용하다.
> 이 조용함은 이미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만 오는

6)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곽형덕 역, 소명, 2019, 73-76면; 같은 책, 「소국민 문화의 앙양-순수한 동양사상의 보급」, 같은 책, 219-220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런 조선인이 지닌 평화롭고 영정(寧靜)한 정신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왕가(李王家)의 박물관에는 경이로운 조선 도기(陶器)의 수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려소(高麗燒－고려자기, 인용자)의 조신하게 앉아서 조용히 숨을 뱉고 있는 정숙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조선의 아름다움이다. 나는 건축에도 가요에도 또 의복에도, 모든 조선의 문화에서 이 고려소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움에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끌렸다.

음악에 대해서 나는 음치에 가깝지만 아리랑이나 도라지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노래가 정말 좋다. 이 군의 호의로 여러 장의 레코드를 가져왔는데 나는 때때로 그것을 축음기에 걸고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그래, 이들 노래를 근대의 유행가로 하자, 그 멜로디 속에 반도 민족의 꿈과 탄식이 섞여 있음에 다름없다.

지나인의 노래는 내가 들은 한에서는 모두 금관악기의 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었다. 조선 노래의 멜로디의 애처로움, 그리고 발성법의 복잡함 그것은 분명히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 세계 가요 중에서 매우 우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의복 특히 조선 여성 의복의 아름다움도 비할 데 없는 것이다. 지나 여성의 의복 따위는 그 우아함에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이것은 지나의 모방이리라. 게다가 대부분 비약한 모방일지도 모르나 지나의 건축처럼 사람을 위압하지 않는다. 조선의 건축에는 깊은 친숙함과 바람직함이 있다.

어쨌든 나는 조선이 좋다. 부벽루 주변에 두세 명의 기생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우리 왕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백퍼센트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작년 조선 여행 후 나는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1864-1918) 박사의 『일한고사단(日韓古史斷)』과 그 외의 책을 다시 읽어 보았다. 그 후에 부산의 마쓰다(增田) 씨에게 빌린 『야담(野談)』 서적 등도 탐독하였는데 거기에서도 확실히 일본을 느꼈다. 『야담(野談)』은 조선의 민화인데 일본의 소위 오토기바나시(御伽

噺, 일본의 옛날이야기－인용자)의 원형 같은 것을 그 속에서 몇 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조선의 여러 지인에게 고한다. 군들의 피는 우리들의 육신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피도 또한 군들의 육신에 흐르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나는 조선이 좋다. 기회가 된다면 몇 번이라도 조선에 건너갈 것이다. 듣자니 고이즈미 씨는 대동강변의 대발굴에 이어 더욱 큰 발굴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조선의 흙 속에는 얼마든지 옛 일본이 묻혀 있을 것이다. 조선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똑같이 그것이 묻혀 있으리라.[7]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토 다케오는 조선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적고 있다. 위의 글 「조선을 생각하다(朝鮮をおもふ)」는 중국의 화중(華中) 지방을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돌아오자마자 쓴 글인데 "상하이(上海)의 번잡하고 시끄러움이 아직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8]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가토 다케오가 조선을 생각하게 된 경위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비교하여 중국과 다른' 조선에 관하여 생각나는 것들을 적은 것이다.

중국에의 경험이 없었다면 조선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은 일본의 것과 비교하여 적혔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여행을 하고 온 직후에 조선을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조선을 중국과 비교하게 되었던 것이리라. 정황이 그렇다고 이해한다 하여도 중국이나 조선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과는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할 일이다. 가토 다케오에게 중국과 조선은 비교의 대상인데 그 이전에 중국과 조선은 정치, 문화적인 여러 이유로 밝히고 알아내야 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주체로서 타자화하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당시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중국과 조선을 모두 경험한 일본인들이 두 나라를 비교하여 글을 남긴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리고 가토 다케오의 수필을 포함하여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는 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대동

7) 加藤武雄, 「朝鮮をおもふ」, 『青草』, 道統社, 1941, 194~195면.
8) 加藤武雄, 「朝鮮をおもふ」, 『青草』, 道統社, 1941, 193면.

아정신'이라는 원대한 보편성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곳은 신기한 곳이네요. 같은 땅 아래에서 이렇게 2천 년 전의 문화가 잠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무한한 미래가 묻혀 있습니다."[9]

중국과 비교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조선의 강점을 개인적 차원에서 칭송하며 애정을 드러내던 가토 다케오는 「평양에서(平壤にて)」라는 사소설 풍으로 쓴 수필에서 평양을 다녀간 여느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생의 옷매무새와 하얀 빛깔에 관한 에피소드를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사이사이에 위 인용문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 그것은 곧 '대동아정신'에 봉사하고 일본과 한 나라, 정확하게는 속국이 되기에 적당한 동질감의 근거가 되는 일제에 의한 과거의 발굴과 일제, 식민자본주의에 의한 현재 또는 미래의 개척이다.

일본문학보국회 이사이며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정치가이자 하이쿠 시인이었던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도 여러 편의 수필과 논설에서 일제에 의해 발굴되는 과거와 개척되는/될 현재/미래를 지닌 조선의 모습을 역설하였다.[10] 일제의 정치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조선으로 파견된 일본인의 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조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굴뚝이 많군요."

"네, 저쪽 편은 공업지대랍니다."

검은 조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십 년 전 조선에 왔을 때에는 산들이

9) 加藤武雄, 「平壤にて」, 『青草』, 道統社, 1941, 213면; 한국어 번역본은 「평양」(가토 다케오(加藤武雄), 정현웅(鄭玄雄) 그림, 모던일본사 편, 김희정 외 역, 『개정판 잡지 ≪모던일본≫ 조선판1939』, 어문학사, 2020).

10)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체험에 관해서는 윤미란,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한국학연구』 58, 2020. 8); 윤미란,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체험과 공유」(『한국학연구』 59, 2020. 11)를 참조하기 바람.

모두 붉은 색의 민둥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와 보니 붉게 헐벗은 산들은 녹색 나무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붉은 조선에서 푸른 조선으로－십 년 동안 조선은 아주 젊어졌다. 하지만 이 푸른 조선도 곧 솟아오르는 굴뚝들로 인해 검은 조선이 되려 한다－.[11]

일제의 '대동아정신'의 적극적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가토 다케오는 붉은 산에서 푸른 산이 된 긍정적인 조선의 변화와 푸른 산에서 검은 굴뚝으로 바뀌어가는 부정적인 조선의 변화를 짚어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개발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만 몰두하는 근대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는 것에 그친다.

한편 전시에 일본문학보국회 이사였으며 1944년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일본단 단장으로 참가하였던 일본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평론가인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는 '만주국'과 관련된 책을 다수 출판하였지만[12] 저작 중에 규슈와 조선을 여행하고 돌아와 쓴 글에서 조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부산의 인상은 싫었으나 경성에 가서 보고 역시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중략) 창덕궁, 비원, 경복궁, 이조의 박물관, 총독의 박물관, 청량리, 금곡리 등을 봤다. (중략) 조선요리도 먹고 거기서 기생도 보았다. 호젓하고 아름답고 애처로운 느낌이었다.

이조박물관의 도자기에는 실로 놀랐다.

(중략)

경성을 둘러싼 산수(山水)의 아름다움, 그것에 또 놀랐다. 지금까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13]

---

11) 가토 다케오, 「평양」, 앞의 책, 94면.
12) 長與善郎, 『満支このごろ』, 岡倉書房, 1936; 『満洲の見学』, 新潮社, 1941 외.
13) 長與善郎, 「九州と朝鮮」, 『波』, 曠野社, 1924, 82－83면.

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는 조선 기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역설한다.

> 그러나 술자리에서 시중을 든 기생은 이번에도 역시 다소 조선부인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감동하였다.
>
> (중략)
>
>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조선부인의 아름다움은 러시아나 지나, 에스파냐 여성의 저 열열하고 자극 강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름다움의 반대이다. (중략) 훌륭한 그러나 너무 유창하지 않은 일본어가 또 매우 잘 어울린다. (중략) 일종의 세련의 산물이다.[14)]

나가요 요시로는 평양이 아니라 경성에 다녀온 긍정적인 소감을 적고 있기에 공업지대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역시 유물의 아름다움과 기생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예찬하고 있다. 가토 다케오와 마찬가지로 정갈한 일본어를 하는 조선 기생의 이국적인 매력이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읽힌다. 나가요 요시로와 마찬가지로 '대동아정신'을 받드는 일본 문학가들에게는 조선의 기생이 대상으로서 타자화하기에 딱 적합한 하나의 기호로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 소설가이자 잡지 발행인으로 활약하였던 기쿠치 간은 제1회와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의장을 맡아 본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회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는데,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일제의 조선 지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이번 전쟁으로 조선과 대만이 우리 영토에서 없어졌다.
>
> 되돌아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대만에 대한 정책을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과오를 범했다는 생각이 든다.

---

14) 長與善郎, 「朝鮮料理と妓生」, 『滿支このごろ』, 倉野書房, 1936, 206－207면.

(중략)

나는 입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 우리집에 온 조선인을 가능한 한 보살펴주었다. 그중에 가장 성공한 남성은 지금은 신태양사로 바꾼 모던일본사를 일으킨 마해송이다. 그는 17세부터 우리 곁에 왔다. 그는 문예춘추사원으로서 일했는데 역시 회사 관계 문화인은 그를 차별대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일본인 이상으로 대우하였다. 따라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로 문예춘추사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잡지를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일본의 각 방면에서도 조선인을 이와 같이 대우했다면 조선과 일본은 더욱 운연(運然)히 동맹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상은 도쿄의 대회사, 대은행, 대신문사 등은 결코 조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관립 대학에서도 조선인을 기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조선인에게도 그들의 제도(帝都)였던 도쿄에서 조선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낸 이가 몇이나 있을까? 몇 명 알려져 있는 사람은 최승희나 박춘금, 마해송과 소설가 두세 명밖에 없지 않은가?

조선이 일본의 영토였던 이상 적어도 도쿄에서 활약하는 저명한 조선인이 20명이나 30명 있어도 좋을 것이다. 도쿄에서 활약하는 규슈인의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조선인을 동포라고 칭하면서도 조선인을 받아들일 아량이 없었던 것이다. 이래서는 조선인에게 "독립만세"라는 말을 얼마든지 듣게 되어도 불만이 없다.

내가 마해송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자만으로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이므로 어쩔 수 없다.

마해송은 종전(終戰) 전 조선에 간 채로 돌아오지 않은 듯하다. 그가 조선의 독립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걱정이다. 친일적이었다고 해서 박해받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년간 일본에 있었으나 그 민족의식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다. 전쟁 중에도 "자신은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여 싸움이 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조선이나 대만에 대해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다. 조선과 같은 2천만 이상의 민족을 지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만의 경우는 한민족이라는 대국이 있는데 그 일부분인 민족을 일본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리다.

세계적으로 말해도 한 민족이 타민족을 지배하는 현상은 조만간 시정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정치가나 군인은 타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실제 마음이 없으므로 더욱 무리였던 것이다.[15](강조-인용자)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기쿠치 간은 일본 대표로 발회식에서 "문학을 통한 전쟁의 완수 및 대동아공영권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공감하면서 "우리들은 전력을 다해 국가가 내건 커다란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으며, 문학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학의 힘을, 이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밝히고 있다.[16] 기쿠치 간의 이러한 발언은 일제 당국이 내건 '대동아정신'의 이상 즉 아시아 각국이 연맹을 구축하여 서양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근대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마해송을 한 예로 들었듯이 자신과 주변의 "문화인"은 마해송을 '대동아정신'의 기조에 따라 이상적으로 대했고 마해송도 그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실현하며 생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쿠치 간은 자신의 실행대로 일제가 '대동아정신'의 이상을 '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실천하였다면 '대동아공영권'이 실현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패전 이후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민족, 국가의 식민주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마해송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기쿠치 간은 마해송과의 관계를 '대동아공영권'의 이상적 발현의 양상으로서 재규정하고 있다.

3. '대동아문학' 속에서 호명되는 조선문학

마해송의 회고에 따르면 패전 이전에 기쿠치 간은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15) 菊池寛, 「臺灣と朝鮮」, 『其心記』, 建設社, 1946, 103~109면.
16)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곽형덕 역, 소명, 2019, 23~24면.

의 이상과는 약간 다른 영역,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마해송을 양해하고 그에게 협조적이었다.[17]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발언은 일제 중심의 '대동아 정신'에 기초한 '대동아문학'을 표방하고 있었다.

> 『문예강좌(文藝講座)』 회원을 모집하고 가장 놀란 점은 조선 청년 사이에서의 문예열이 높은 것이다.
>
> **조선 청년이 자발적으로인지 일본어를 가르쳐달라는 것에서부터 일본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기쁨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대되고 있는 조선 청년이 가장 자유로운 문단에 대해서 야심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것은 우리들의 상심, 희망하는 바이다. 문단에서만은 국경적 편견도 인종적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제씨(諸氏)는 일본문학의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일본문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조선문학을 수립해주었으면 한다.**
>
> **아일랜드사람[愛蘭人]이 영어로써 새로운 아일랜드문학을 일으키고 영문학을 압도한 것과 같이 조선 청년이 일본어로써 새로운 조선문학을 일으키고 일본문학을 압도하는 것도 희심의 일임에 틀림없다.** 많은 민족운동의 선구를 이루는 것은 문예운동이다. 신조선을 수립하는 선구도, 새로운 조선문학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의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에서 새로운 문학이 나오고 막혀있는 일본문학에 자극을 주는 시대가 올 것도 나만의 공상은 아닐 것이다.(1923년 9월, 강조-인용자)[18]

기쿠치 간이 역설(力說)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문학"은 아일랜드문학처럼 영문학을 중심으로 융화되는 영문학 속에서의 아일랜드문학이다. 곧 기존의 일본문학을 자극하며 새로운 일본문학을 일으키는 일본문학인 조선문학이다. 즉 "문단에서만은 국경적 편견도 인종적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논리상 '일제에 대한 국경적 편견과 인종적 차

17) 마해송, 「명명(命名)」, 「일본을 다녀와서」(『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을 참조.

18) 菊池寛, 「朝鮮文學の希望」, 『文藝當座帳』, 改造社, 1925, 53면.

별 없이' 일제를 받아들이고 일제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조선문학인 것이다. 시기상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가 온전히 개인적 차원의 관계에만 머물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호의와 소통에서 시작된 조선인과 조선문학에 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실상 일제를 주축으로 하고자 하는 '대동아정신'에 일조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상황은 가토 다케오와 이무영 사이에도 나타난다.

> 이무영 군은 10년 전에 우리 집에서 2, 3년을 지낸 사람으로 지금은 조선문단에서 훌륭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신조(新潮)』 5월호(조선문단의 대표 작가)에서 장혁주가 조선의 문단을 이야기했는데 그 글에서도 그의 작품이 다뤄졌다. 조선글을 읽지 못하는 슬픔으로, 나는 이군으로부터 오는 여러 권의 저작을 읽지 못하고 있으나 이만한 작가가 되어 준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비타협적이기까지 한 엄숙함으로 굳게 자기의 경지(境地)를 지키고 있는 작가라고 한다는 조선에서의 소문을 들었다. 목가적인 작풍에서부터 심각한 리얼리즘으로 돌진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장 군의 평론에서 고찰되고 있었다. 어쨌든 크게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19]

> 이무영은 4년간 가토 다케오의 집에서 서생으로 일하면서 습작 훈련과 문학 지도를 받았다. 성실한 데다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이무영을 가토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중학교에 입학시킬 정도로 아끼며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

두 번째 인용문에서 가토 다케오가 이무영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심성의껏 지원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게 진심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였던 가토 다케오였지만 실상 그는 이무영이 훗날 조선문단에서 어떤 작가로서 자립하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는 고작 장혁주가 일본에서 전해주는 조선문단 소식에 의존해서만 이무영의 위치와 작풍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다. 비록 조선말을 알지 못하는 스승이지만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춰 자신의

---

19) 加藤武雄, 『青草』, 道統社, 1941, 193~194면.
20) 임기현, 「이무영의 친일문학과 그 내적 논리」,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485~486면.

작품이 나오는 대로 계속 보내는 이무영과 그것을 받고 보고 평을 하지는 못한 채 쌓아두는 대신 다른 평론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스승 사이에는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현실을 둘러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사이에서 생겨나는 아이러니가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소설가이자 문학연구가로서 춘추사(春秋社)에서 톨스토이전집을 펴내는 한편 춘추사 이후에는 코난 도일의 번역에 관여하였으며 메이지문화연구회(明治文化研究会), 일본페이비안협회(日本フェビアン協会), 노농당(勞農黨) 등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기무라 기(木村毅)의 경우를 살펴보자.

> 각국의 문예협회가 책임을 지고 작품을 추천해 그것을 각국에서 번역해, 내년에 모일 때는 여러분이 역시 책임을 지고 각 나라의 대표 작품을 읽고 모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21]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기무라 기는 '대동아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읽고 공유하자는 제안을 한다. 실제 대회장에 모인 일본 문인들은 조선문학이나 중국문학에 관심이 지대하지는 않았다. 조선어와 중국어 사용자도 많지 않았을뿐더러 일본 내에 조선문학이나 중국문학의 번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무라 기는 그런 일본 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정한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 있지만 이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의 상황인 만큼 그렇게 기초를 쌓아 체계적으로 '대동아문학'을 만들어 나가고 '대동아문학자대회'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럴 의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무라 기의 제안 또한 일제의 '대동아정신'에 기초한 것이기에 각국의 문학의 독자성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패전 후에 기무라 기는 유주현의 장편소설『조선총독부－실록대하

---

21)『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곽형덕 역, 소명, 2019, 80면.

소설』[22]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때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큰 감흥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었다.

극히 상식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일본인이므로 같은 동포, 국민이 매우 호되게 다뤄지고 나쁘게 쓰인 것을 읽는 것은 불쾌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次郎) 등 메이지사(明治史) 상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일본인인 내가 부아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몹시 분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적으로 말하면 이국인인 조선지사에 대하여 만복의 공감과 동정을 느낀다.

(중략)

실은 우리 형제는 예전부터의 소위 지선가(知鮮家)이다.

나는 조선신설사단의 최초의 나미헤이(並兵)로서 징집되어 전라도 남원의 중대에 1년간 있었다. 근처의 운봉에 이학사라는 반일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난을 일으켜 처형되었지만 그 딸이 뛰어난 여걸인데 동지를 끌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 중대에서 멀리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도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최남선은 게이오(慶応)를 나와서 당시 양구, 조선의 지도자로서 진보적인 조선인의 갈앙(渴仰)의 대상이었다.

제대하고 나는 학업 중도에 징병되었으므로 또 와세다의 학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뜻밖에 최두선 군과 동급생이 되었다. 그는 철학과, 나는 영문과였으나 같은 문과, 게다가 졸업 때 그는 수석의 특대생으로 제국대학 은사의 은시계에 상당하는 오쿠마(大隈) 총장부인상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최남선의 진짜 동생이었으므로 나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종전 독립 후는 수년 전 잠깐 총리가 되어 있던 것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로울 것이다.

---

22) 柳周鉉,『朝鮮總督府：實錄大河小說 1-5』, 신태양사, 1967.

와세다를 나오자마자 나는 조선수비대시대에 접촉한 소재로 이들 독립당의 청년을 소재로 한 「토끼와 기생(兎と妓生と)」이라는 중편소설을 썼다. 관동대진재 즈음 도쿄의 신문은 전멸하고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석간에 게재되었고 후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물론 지금의 한국인 제군이 읽으면 대국의식으로 멸시하고 있다고 만족은 하지 못하겠으나 데라우치의 전성시대에 이러한 혁명적 소설을 썼고 복자도 있으면서 공표한 용기에는 약간 동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의 형은 조선총독부의 관사로 최후에는 원산부윤을 하였는데** 소화 초 자동차 사고로 죽었으나 분명히 **1909년에 조선에 건너가 처음으로 경주 발굴을 하고 『경주지(慶州誌)』라는 책을 냈다. 그러나 그 귀중한 발굴물을 일본의 대관(大官)과 상인이 마음대로 가지고 돌아왔다는 역사 무시의 폭력상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조선에서 노후(老朽)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자비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대사 한국문화재위원 이홍식 씨는 마이니치신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경주의 석굴 복원은 5월에 완성되었으나 여기에 있었던 불상 2개와 석탑 3개도 부당하게 쓰키모토가 가지고 갔다. 이에 대해서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의 저서 『조선에서 노후(老朽)하여』(1924년)에서 일본에 가지고 간 불상 2점을 반환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돌아가신 형의 저서가 이러한 증거로서 생각기에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이 소설의 추천자가 되기로 한 것에 약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23](강조－인용자)

기무라 기는 형 기무라 시즈오와 자신을 일제강점기의 지선가(知鮮家)로 자평하면서 1968년 일본에서 유주현의 소설이 출판되는 시점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에 관하여 집약적으로 서문에 적고 있다. 기무라 기는 일제의 군대에 징집되어 조선수비대로 있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1925년에 창작한 소설 「토끼와 기생(兎と妓生と)」[24]에 관하여 새삼 언급하면서

23) 木村毅, 「序」, 柳周鉉 著, 朴容九 譯, 『小說朝鮮總督府』, 講談社, 1968, 1~4면.
24) 木村毅, 『日清日露の戰爭』 コレクション戰爭と文學 第六卷, 集英社, 2011, 331~405면. 최준호의 연

“혁명적 소설”이라고 자칭하면서 젊은 시절 벗어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문학적 저항을 소극적으로나마 했었던 추억을 소환한다. 이와 더불어 형 기무라 시즈오가 비록 원산 부윤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관리자로서 위치하였지만 경주의 유물을 밀반출해댄 일본인들에 대한 분개로 그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도 소환하며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환 운동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기무라 기의 20대에 군인으로서 경험한 일본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참석과 발언으로 일제의 총력전 기획장 안에 포섭되었다가 다시 패전 이후 한국인이 그린 ‘조선총독부’의 모습을 계기로 한 번 더 강하게 청년기에 시도했던 시도들을 반추하며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자는 적극적인 제안으로 변모한다. 시대 상황이 변하였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하고 기무라 기는 청년 시절의 좌절됐던 로맨스를 꺼내어 놓는다.

4. ‘대동아정신’의 이상과 현실을 보여주는 일본 문학가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했던 일본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조선과 조선문학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동아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제의 기획 속에 포섭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일본 문인들 중에서 조선과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남겼던 가토 다케오, 기쿠치 간, 기무라 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시각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함으로써 당대 일본의 조선(문)학의 한 양태를 짚을 수 있었다.

가토 타케오, 시모무라 가이난 그리고 나가요 요시로는 만주나 중국에서

구(崔俊鎬, 「木村毅の「兎と妓生と」論－植民地ロマンスの深層－」, 『日語日文學』 66, 2015)에 따르면 종주국 남성과 식민지 여성의 로맨스를 중심축으로 종주국 남성이 식민지 상황하에서 자민족 커뮤니티에서 이탈하여 식민지 피지배민족과 새로운 관계의 구축에 대한 도전하였으나 좌절로 끝나는 이야기, 즉 식민지 조선 및 조선인을 포섭하고 회유하려는 종주국 일본의 통치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촉발되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만주나 중국을 조선과 비교하면서 조선을 인식함과 동시에 일제의 '대동아정신'을 적극 이행하며 조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글 속에는 그런 인식이 주로 나타나는 와중에 약간씩 '대동아정신'의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 및 모순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기쿠치 간은 마해송을 예로 들어 자신은 온 마음으로 곧 '대동아정신'의 구현이라 보아도 손색없는 '타민족 사랑'을 실천하였다며 자부하는 한편 패전 이전의 일본이 '대동아정신'의 이상의 실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절 일제의 군인으로서 조선땅과 조선사람을 겪어본 기무라 기는 패전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일제강점기의 조선을 떠올리며 '대동아정신'의 모순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런 양상들이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문학가의 발언과 '대동아정신' 관련 글들에 관한 연구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문학가(김사량, 장혁주 등)의 발언과 글들이 '대동아정신'에 관한 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으며 일본 작가들의 그것과 어떤 영향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는 바이다.

이러한 조선 인식은 일본 시민사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이후 일본의 한국학의 여러 분야를 이루어 오는 데 작게 혹은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말기 일본 내 조선(문)학의 유통과 그 의미를 연속적으로 혹은 비연속적으로 이어 가서 여러 갈래의 일본 한국학이 형성되었을 터인데, 이런 일본인들의 조선 인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패전 후 일본 내의 한국(조선)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새롭게 제기되는 일련의 흐름에 관하여 정리하는 것 또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곽형덕 역, 소명, 2019.

加藤武雄, 『青草』, 道統社, 1941.

菊池寛, 『文藝當座帳』, 改造社, 1925.

_____, 『其心記』, 建設社, 1946.

모던일본사 편, 김희정 외 역, 『개정판 잡지 ≪모던일본≫ 조선판1939』, 어문학사, 2020.

木村毅, 「序」, 柳周鉉 著, 朴容九 譯, 『小說朝鮮總督府』, 講談社, 1968.

_____, 『日清日露の戰爭』 コレクション戰爭と文學 第六卷, 集英社, 2011.

신지영, 『부(不)/재(在)의 시대 : 근대계몽기 및 식민지기 조선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오무라 마스오,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4.

柳周鉉, 『朝鮮總督府 : 實錄大河小說 1-5』, 신태양사, 1967.

長與善郎, 『波』, 曠野社, 1924.

_____, 『満支このごろ』, 岡倉書房, 1936.

_____, 『満洲の見学』, 新潮社, 1941

2. 논문

곽형덕, 「'大東亜' 談論と日本帝国の文学場－大東亜文学賞と芥川賞を中心に－」, 『한민족문화연구』 46, 한국문화학회, 2014.

신지영, 「'대동아 문학자 대회'라는 문법, 그 변형과 잔여들－타자는 타자와 만날 수 있는가?－」,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1.

윤미란,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 『한국학연구』 5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8.

_____,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체험과 공유」, 『한국학연구』 5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11.

임기현, 「이무영의 친일문학과 그 내적 논리」,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2009.

崔俊鎬, 「木村毅の「兎と妓生と」論－植民地ロマンスの深層－」, 『日語日文學』 66,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The Joseon experience and literature of Japanese writers who participated in the Great Eastern Asian Writers Conventions

Yun, Miran*

This thesis examines the Joseon experience and view of Joseon by Japanese writers like Kato Takeo(加藤武雄), Kikuchi Kan(菊池寛), and Kimura Gi(木村毅) who attended and spoke at the Great Eastern Asian Writers Conventions(大東亞文學者大會).

Kato Takeo and Nagayo Yosiro(長與善郎) recognized Joseon by comparing Manchuria and China with Joseon as they became interested in Joseon from Manchuria or China. At the same time, they showed awareness of Joseon by actively implementing the 'Great Eastern Asia Spirit(大東亞情神)' of the Japanese Empire. In this perception of Joseon,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Great Eastern Asia Spirit' were also glimpsed.

On the other hand, Kikuchi Kan was proud to say that he practiced the "Great East Asia Spirit," taking the Ma, Haesong(馬海松) as an example, while He criticized the Japanese Empire for not having such a practice. Lastly, Kimura Gi, who experienced Joseon as a soldier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a young man, raised an objection to the contradiction of the 'Great Eastern Asia Spirit', recalling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20 years after the defeat of Pacific War.

* Research Professor of Inha Univ. Center for Korean Studies

Key words : the Great Eastern Asian Writers Conventions(大東亞文學者大會), 'Great Eastern Asia Spirit(大東亞情神)', Kato Takeo(加藤武雄), Kikuchi Kan(菊池寬), Kimura Gi(木村毅), Joseon experienc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31일